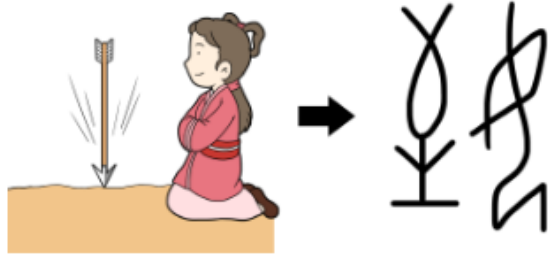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姪

조카 질

姪자는 '조카'나 '조카 딸'을 뜻하는 글자이다. 姪자는 女(여자 여)자와 至(이를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至자는 화살이 땅에 꽂혀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다다르다'나 '이르다'라는 뜻이 있다. 조카나 조카딸은 나의 형제자매가 낳은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姪자에 쓰인 至자는 '지→질'로의 발음역할을 하면서도 '이르다'나 '다다르다'라는 뜻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왜냐하면, 姪자는 '다음 세대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조카들은 우리를 거쳐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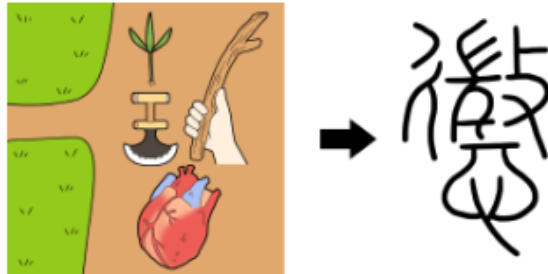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懲

징계할
징

懲자는 '징계하다'나 '응징하다', '벌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懲자는 徵(부를 징)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徵자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왕명으로 동원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만약 징집을 회피하고 왕명을 거스른다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징집하다'를 뜻하는 徵자에 心자가 더해진 懲자는 '징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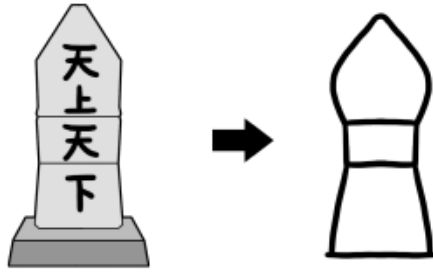
해서

소전

해서

3
-
243

상형문자①



冂

또 차:

冂자는 '또한'이나 '장차', '도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冂자는 비석을 그린 것이다. 비석은 돌아가신 조상의 무덤에 이름과 행적을 글로 새겨 세우던 것이다. 그래서 冂자의 본래 의미는 '조상'이었지만 후에 '또한'이나 '장차', '도마'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冂자가 '도마'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은 일부 글자에서는 冂자를 제물을 올려놓는 '도마'로 응용했기 때문이다. 冂자의 뜻이 바뀌면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示(보일 시)자를 더한 祖(조상 조)자가 '조상'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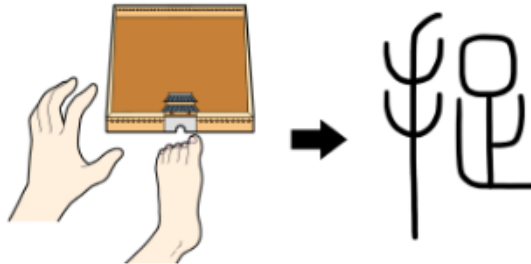
소전



해서

3
-
244

회의문자①



捉

잡을 착

捉자는 '잡다'나 '체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捉자는 手(손 수)자와 足(발 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足자는 성(城)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捉자는 이렇게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足자에 手자를 결합한 것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捉자에 쓰인 足자는 쫓아간다는 뜻이고 手자는 손으로 붙잡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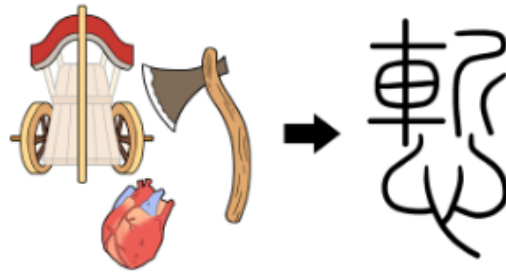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慙

부끄러울
참

慙자는 ‘부끄럽다’나 ‘수치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慙자는 斬(벨 참)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斬자는 車(수레 차)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것이다. 고대에는 斬자가 죄인의 사지를 다섯 대의 수레에 나누어 묶어 찢어 죽이던 형벌을 뜻했다. 사극에 나오는 거열처사(車裂處死)라고 하는 형벌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참형을 뜻하는 斬자에 心자가 결합한 慙자는 참형을 받게 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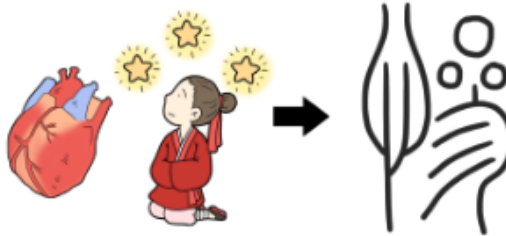
慙

소전

慙

해서

회의문자①



慘

참혹할
참

慘자는 ‘잔혹하다’나 ‘비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慘자는 心(마음 심)자와 參(참여할 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參자는 사람의 머리 위로 별을 그려 넣은 것으로 ‘참여하다’나 ‘간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간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參자에 心자가 더해진 慘자는 주위의 불필요한 간여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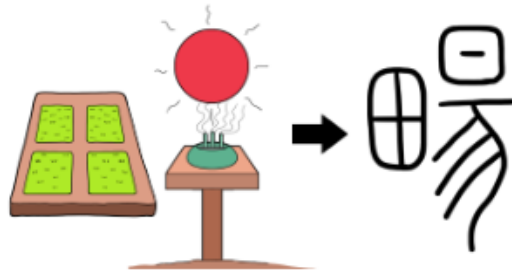
慘

소전

慘

해서

회의문자①



暢

화창할
창:

暢자는 '화창하다'나 '통쾌하다', '후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暢자는 申(펼 신)자와 易(별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易자는 햇볕이 내리쬐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田(밭 전)자가 들어간 暘(화창할 창)자가 쓰였었다. 暘자는 햇볕이 농지를 내리쬐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해서에서는 申(펼 신)자로 바뀌면서 마치 햇볕이 번개처럼 강하게 내리쬐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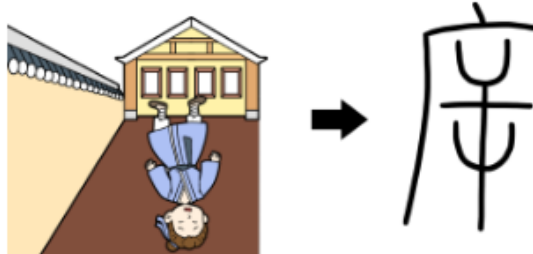
暘

소전

暢

해서

회의문자①



斥

물리칠
척

斥자는 '물리치다'나 '내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斥자는 斤(도끼 근)자에 획이 하나 그려져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斥자는 '도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斥자의 소전을 보면 广(집 엄)자에 𠂔(거스를 역)자가 결합한 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𠂔자는 사람을 뒤집어 그린 것으로 '거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집을 뜻하는 广자가 결합한 斥자는 사람을 집에서 내쫓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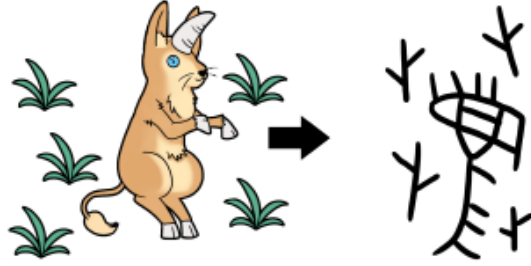
𠂔

소전

斥


해서

상형문자 ①



薦

천거할
천:

薦자는 '천거하다'나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薦자는 艹(풀 초)자와 薦(해태 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薦자는 뿔이 달린 해태를 그린 것이다. 금문에 나온 薦자를 보면 뿔이 달린 짐승이 몸을 치켜세운 채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중국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薦자에 대해 '짐승이 풀을 뜯어 먹는 것이다(獸之所食草)'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薦자는 '풀을 뜯다'나 '짐승이 먹는 풀'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몸을 치켜세운 해태의 모습에서 '올리다'라는 뜻이 파생되었고 후에는 사람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천거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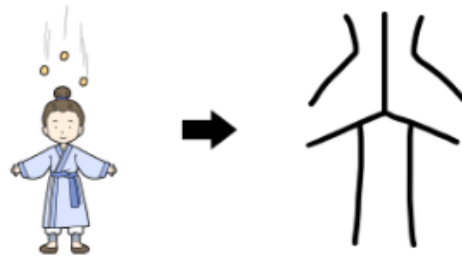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尖

뾰족할
첨

尖자는 '뾰족하다'나 '날카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尖자는 小(작을 소)자와 大(큰 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큰 것과 작은 것의 결합이 왜 '날카롭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 尖자는 큰 것을 작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尖자는 큰 것(大)을 가공하여 작게(小) 만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뾰족한 것은 우뚝 솟은 '산봉우리'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尖자에는 '앞서 나가다'나 '정상에 있다'와 같은 뜻도 파생되어 있다.



소전



해서